



**예수병원, 희망나눔장학금 500만원 원광대 전달**

예수병원(병원장 신충식)은 (사)새한나눔이 준비한 희망나눔장학금 500만원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두 자매에게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두 학생은 지난 2020년에 예수병원 호스피스 병실에서 완화의료 돌봄을 받고 소천하신 환우분의 자녀들로, 사(사)새한나눔은 암·중증환자 뿐만 아니라 가족을 돕고자 하는 후원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사)새한나눔은 (사)새한인환자후원회에서 법인명을 변경해 암환자 가족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약계층을 돌보고 새로운 희망 찾기에 일익을 다하며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

신충식 병원장은 "두 학생이 어려웠던 환경을 극복하고 학업에 집중에 더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의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학금을 전달받은 두 자매는 "예수병원 완화의료센터와 사(사)새한나눔의 도움으로 힘들었던 시기를 이겨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주소 정책 업무추진 평가 행안부장관 표창**

남원시, 지리산둘레길 1코스·2코스 도로명주소 구축사업 기점 작용

남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도 주소정책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며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주소정책 전반에 대한 시군구별 업무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우수 및 수범사례 등을 발굴해 지자체 간 업무공유와 정책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평가는 도로명주소 홍보 및 활용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일체조사, 도로명주소 관련 불편사항 정비, 우수사례 시책 추진 등으로 남원시는 전 분야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행정안전부 '2023년 지자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리산둘레길 1코스 및 2코스 도로명주소 구축사업 추진한 것이 도로명주소 정책 제안 참여와 지자체 협력 추진 평가에서 가점으로 작용했으며, 우수지자체 표창 수상과 함께 2천2백만원의 정책성과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주소정책 현안업무 추진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 민원과 관례적 과정은 "2024년에도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무 추진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남원시 민원과 관례적 과정은 "2024년에도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시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 의정부문 대상 수상**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 15일 사단법인 대한가정학회 전북협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의 정대상 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의정대상은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주력하며 생생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노력한 바가 지대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재선으로 제9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오임선 의원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동료의원 모두가 역량을 발휘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이 불편하다면 어느 곳이든 찾아가 민원을 청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왔다.

'이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 공공목적 현수막부터 친환경 소재 사용, 영등동 르네상스 사업과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신속 추진, 외면받는 어양동 실개천을 새단장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도록 촉구하는 등 시민의 곁에 함께 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왔다.

오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많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을 뿐인데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북도, '이달의 도전 끝판왕 주인공' 문혜숙 주무관 선정**

전북도는 18일,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도전 끝판왕 주인공으로 일자리민생경제와 문혜숙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전북도는 매일 다른 주제로 '이달의 혁신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12월에는 11월까지 주인공으로 선정되지 못한 후보자 중 업무 공적도 등을 심사해 이달의 도전 끝판왕 주인공을 선정했다.

이달의 도전 끝판왕 주인공으로 선정된 문혜숙 주무관은 지난 11월 전문가 주인공으로 추천됐으나, 최종 심사과정에서 간발의 차로 주인공에 선발되지 못했다.

문혜숙 주무관은 전라북도 소비자생활센터의 전문소비자상담자로서, 도민에게 새롭고 유익한 소비자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데 앞장서 왔다.

또한, 적극적인 소비자 피해상담 운영으로 2023년 상반기 '1372 전화상담'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도가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문 주무관은 2022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및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특수거래 분야 12년 연속 '가'등급 획득 등 각종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재훈 기자



이달의 도전 끝판왕 주인공으로 선정된 문혜숙 주무관은 "2023년 한해 마무리를 뜻깊은 상과 함께해 기쁘고 감사하다"며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도민의 소비자 권리의식 향상 등 업무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도, 언제나 도전정신의 자세로 전북 지역소비자 권익증진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풍납초, 온(溫)온(온)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전주풍납초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6일 전주시 서서학동 흑석골 일대에서 전주풍납초 1학년 학생부터 60대 졸업생 선배, 학부모, 교직원 등 60여 명이 함께 연탄을 나눠줬다.

이번 '온(溫)온(온) 사랑의 연탄나눔'은 전주풍납초 총동문회(회장 채수찬)가 연탄을 기부하고, 전주풍납초학부모회(회장 손순숙)가 주관해 이뤄졌다.

2시간여 동안 연탄배달 행사에 참여했던 풍납초 학생은 "날씨가 너무 추워 힘들었지만 여러 명이 함께해서 보람차고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50회 졸업생 선배는 "어린 후배들이 추운 날씨에도 많이 참석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선배들이 함께 따뜻한 봉사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바둑대회 성료**

남원시가 운영하는 동부노인복지관에서는 18일 바둑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동부노인복지관 홍보 및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복지관 회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친목을 다지며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에는 심판을 초빙해 공정하게 심사해 우승자(1~3등)에게는 소정의 경품도 지급했다.

한 참가자는 "하루하루 무료한 시간을 보냈는데 복지관이 문을 열면서 자주 이용하게 됐다"며 "오늘처럼 바둑대회도 참가하게 돼서 무척 기쁘다. 건강도 챙기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어 참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기자

**전북도, 제16회 희망나무 예술제 성황리 개최**

전북도는 지난 16일 우석대학교 문화관(아트홀)에서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종사자 등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회 전라북도 희망나무 사랑예술제'를 개최했다.

아동들의 창의력과 표현력, 자신감과 성취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의 행사로 도내 15개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의 예술적 재능과 열정을 마음껏 발휘하는 무대가 되고 있으며, 2007년부터 매년 연말에 전북아동복지협의회(협회장 양창환)가 주관해 돼 진행되고 있다.

참가자는 아동양육시설 요원들을 포함한 15개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종사자가 참석했으며, △사물놀이 △트럼폴린 △델타 △밴드 공연 △중창 및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동들이 재능과 기량을 뽐내는 자리가 됐다. 또한, 그동안 아동복지 발전 유공자에게 도지사 표창도 수여됐다.

대회에 참석한 한 아동은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마음



껏 선보일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으며, 공연을 준비하면서 서로 더 친해지고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앞으로도 예술제가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순창군 강천산 번영회, 현금 200만원 지정 기탁**

순창군 강천산 번영회(회장 정유진)는 최근 순창군정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현금 200만 원을 순창군에 기탁했다.

강천산 번영회는 "침체된 경제상황에도 임장료 반환사업을 통해 상인들이 활력을 되찾았다"며 "이번 현금모금을 통해 상인들 간에도 더욱 단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을 대표하는 강천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욱더 친절하게 응대해 군의 위상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강천산 상가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워지는 성공적 선순환 구조로 발전되어 기쁘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기탁에 참여해 주신 상가번영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진안군청 하수도팀, 진안사랑 장학금 기탁**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진안군청 상하수도과 하수도팀에서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탁식은 지난 11월 2023년도 환경부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진안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받은 포상금으로 진행했으며 상하수도과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뜻을 모아 장학금 기탁을 결정하게 됐다.

이날 전달식에서 상하수도과 이철민 과장은 "공공하수도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항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역의 인재육성이라는 좋은 일에 포상금을 기부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춘성 이사장은 "포상금 중 일부를 기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진안군의 발전과 인정을 위한 많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도내 유학생 대상 팸투어**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11월말부터 전주 원도심 소풍관광 활성화회 위한 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 유학생 대상 팸투어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단은 완주 대둔산 일설 치즈페스티벌, 남원 광한루 등 도내 대표적인 관광지와 원도심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팸투어에 참여한 유학생들은 "음식점에 가서 메뉴를 주문할 때 메뉴명으로는 어떤 음식인지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 QR코드를 활용하면 다국어 안내뿐만 아니라 자세한 설명까지 나와 굉장히 편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학 관계자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단에서는 팸투어 참여자와 각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재단에서는 전주 원도심 소풍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업종의 업체에 QR코드를 활용한 다국어 안내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원도심 내 음식점, 관광 등 방문했을 때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QR코드를 활용해 개별 스마트폰기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정은성 기자



**광천실업 김종욱 대표, 순창군에 고향사랑기부금**

순창군 출향인들이 연이어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순창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순창군 동계면 출신 기업인 광천실업 김종욱 대표가 18일 순창군 고향사랑기부금 최고액 기부자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시에서 의류를 생산하는 광천실업을 운영 중인 김종욱 대표는 동계중학교 총동문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평소에도 고향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종욱 대표는 "고향 순창군의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향발전을 위한 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과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부에 동참해주신 김종욱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화답했다. /순창=이양원 기자